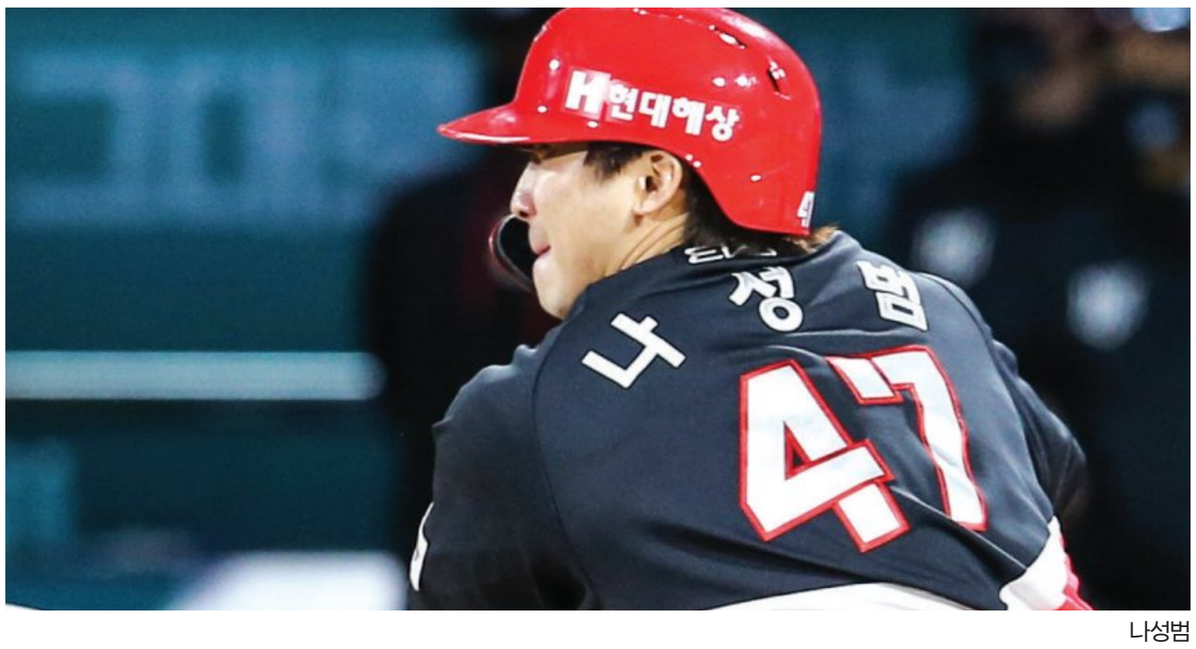
개막 시리즈는 잊어라…쌍둥이 잡으러 잠실 간다

양현종


나성범

KIA, LG와 리턴매치…선발 양현종 최연소 150승 도전
페이스 좋은 나성범 "홈 같은 원정…팬 응원에 부응할 것"

주말 잠실에서 '야구 전쟁'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는 13일부터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벌인다. KIA 선수들도 팬들도 기다렸던 시리즈다.

KIA는 4월 2일 개막전 상대로 LG를 만났다. 첫 경기에서는 김선빈의 연속 실책이 나오는 등 기싸움에서 밀리면서 0-9패가 기록됐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2-3의 1점 차 패배가 남았다.

개막 시리즈에서 2패를 안겨준 상대와의 리턴 매치가 전개되면서 KIA는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KIA는 안정된 선발진과 살아난 타선의 힘으로 최근 6연승을 달리는 등 자신감을 가지고 LG를 다시 만나게 된다.

김종국 감독은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은 상태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선발진에서 양현종, 놀린, 임기영이 나간다. 타자들이 반격할 수 있는 만큼 버텨주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양현종은 앞선 7일 한화전에서 통산 149승을 수확했다. 양현종은 LG를 상대로 150승을 노린다. 양현종은 149승 중 25승을 LG전에서 기록하기도 했었다.

150승은 지난 2007년 한화 정민철 이후 15년 만에 나오는 대기록이다. KIA 소속으로는 지난 2004년 이강철이 150승 고지를 밟았다.

양현종은 13일 승리투수가 되면 34세 2개월 12일에 150승을 채우게 된다. 정민철이 가지고 있는 35세 2개월 27일의 기록을 넘어 최연소 150승 기록이 만들어진다.

타석에서는 나성범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나성범은 KIA 유니폼을 입고 처음 잠실 그라운드에 오르게 된다.

최근 타격도 뜨겁다. 나성범은 지난 5일 키움전에서 오랜만에 홈런포를 가동한 뒤 8일 한화전, 11일 KT전에서도 손맛을 봤다. 특히 11일에 기록한 투런포는 챔피언스필드 중앙을 넘기는 130m짜리 대형 홈런이었다.

이날 선발 이의리의 제구 난조 속 초반 대량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지만 나성범은 이우성과 함께 홈런포를 날리면서 팬들을 웃게 했다.

나성범은 "홈런이 좀 더 나오면 좋겠지만 너무 욕심내지 않고 똑같이 하려 하고 있다"며 "홈런은 어디로 치든 항상 기분은 좋지만 유독 가운데로 넘길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가장 멋있는 홈런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힘도 잘 실렸고 맞는 순간 직감했다"고 11일 홈런을 이야기했다.

또 "(연승기간에는) 질 것 같지 않았다. 11일 경기에서 초반에 점수는 많이 줬지만 나도 홈런 쳤고, 우성이도 홈런을 치기도 했다. 끝까지 상대 팀을 압박하면서 경기를 해야 상대도 긴장감 늦추지 않고 우리와 경기할 때 편하게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홈런의 의미를 이야기했다.

양현종과 나성범이 버티고 있는 그라운드의 뜨거운 승리 싸움만큼 관중석에서도 흥미로운 '응원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호랑이 군단'의 잠실 경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수도권 팬들로 잠실 주말 3연전 표가 불티나게 팔렸다.

KIA 팬들은 육성 응원 재개 뒤 펼쳐지는 첫 잠실 경기에서 화끈한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줄 준비를 끝냈다.

나성범은 "매 경기가 홈경기 같다. 원정에서도 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더 집중되는 것 같고 응원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른 구장에도 팬분들이 많지만 유독 잠실이 많다고 선수들이 이야기했다.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며 첫 잠실 원정에 나서는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안방 9연승 잇는다

K리그2 15R 안산그리너스 상대… 엄지성·허율·정호연 등 '광탄소년단' 활약 기대

'1위' 광주FC가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홈 9연승을 잇는다.

광주는 오는 15일 오후 4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안산과 K리그2 2022 15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지는 법을 잊은 광주는 특히 안방에서 강했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엄지성의 환상적인 골로 1-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8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렸다. FA컵을 포함하면 9경기에서 지지 않았다.

또 이날 승리로 광주는 홈 8연승을 내달리면서 부천FC의 추격을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켰다.

'광탄소년단'이 광주의 질주 전면에 섰다.

서울이랜드전 엄지성의 골에는 허율과 정호연이 있었다. 왼쪽 측면에 있던 허율이 중앙에 있던 정호연에게 패스를 했고, 이어 엄지성에게 공이 배달되면서 결승골이 장식됐다.

완벽한 호흡으로 골을 만든 이들은 경기 내내 타이트한 전방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에도 나서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중원에서는 이순민과 박한빈이 적극적인 압박과 부지런한 활동으로 살림꾼 역할을 해내고 있고, 이으뜸, 이민기, 두현석, 이상기 등 풀백 자원도 측면에서 날카롭게 움직이면서 광주의 1위 질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장' 안영규는 지난 라운드에서 13개의 클리어링과 6개의 인터셉트 등으로 맹활약을 하며 베스트11에 올랐다. 역시 잇단 호수비로 '클린 시트'를 장식한 골키퍼 김경민과 도움을 기록한 정호연도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안산은 올 시즌 7무 6패(승점 7)에 그치면서 최하위인 11위에 자리하고 있다. 아직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고, 앞선 맞대결에서도 광주가 2-0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성적으로는 광주가 압도적인 우위지만 상대 전적에는 4승 2무 3패로 광주가 근소하게 앞서 있다. 또 안산과의 맞대결은 항상 치열하게 전개됐다.

끈끈한 조직력과 질식 수비 그리고 광주에서 활약했던 두아르테를 필두로 최건주, 이상민 등 한방을 갖춘 선수들도 조심해야 한다.

광주는 집중력 있는 승부로 1위를 지켜야 한다. 광주의 거침 없는 질주 속 2위 부천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부천은 승점 2점 차에서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광주가 패스 플레이로 상대의 거친 압박을 풀어내고,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FC가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홈 9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14라운드 서울이랜드전에서 엄지성의 득점이 나온 뒤 기뻐하는 선수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14일 오후 4시 부산아시아드 경기에서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순위 싸움에 다시 시동을 건다.

ACL 강행군을 마치고 돌아온 전남은 지난 14라운드 부천 원정에서 1-2 역전패를 당했다.

전경준 감독은 패배 원인을 '피로감'으로 보고 과감하게 선수단에 휴가를 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전남은 올 시즌 정규리그 11경기에서 3승 3무 5패(승점 12)를 거두며 9위에 랭크됐다. ACL 참가로 2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아쉬운 성적이다.

전남은 올 시즌에도 화력 고민 속 최근 정규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3득점 5실점)로 고전하고 있다.

휴식으로 분위기를 바꾼 전남이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승리를 안고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네이마르의 브라질 한국 온다

벤투호와 내달 2일 서울서 평가전…손흥민과 격돌

'최강'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를 비롯한 호화 라인업으로 한국 원정길에 오른다.

브라질축구협회는 11일(현지시간) 6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내달 2일 한국, 6일 일본과 차례로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현역 브라질 A매치 최다 득점자(71골)인 네이마르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마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경쟁에 나서는 등 최고 공격수로 떠오른 손흥민(토트넘)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골잡이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손흥민

네이마르

네이마르를 비롯해 올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14골·12도움을 올린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8골·9도움을 기록 중인 가브리엘 제주스(맨시티) 등 호화 공격진이 총출동한다.

골키퍼 알리송(리버풀), 미드필더 카세미루(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티아구 실바(첼시) 등 다른 포지션도 최정예로 꾸려졌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이번 브라질과 평가전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하는 고난도 모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벤투호는 6월 A매치 기간(5월 30일~6월 14일) 브라질, 칠레(6일), 파라과이(10일)를 차례로 상대한다. 총 4경기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경기 상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브라질축구협회는 6월 11일 호주에서 치를 예정이던 '라이벌'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이 아르헨티나 측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선수 출신으로 브라질 대표팀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주니뉴 파울리스타는 "아르헨티나전 취소로 카타르 월드컵 준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대신 아프리카 팀과 경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유럽 팀과 경기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카메룬, 스위스, 세르비아와 G조에 속해 있다.

/연합뉴스

임성재, 아! 코로나

KPGA 코리안투어 기권…19일 PGA 챔피언십 출전도 불투명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 출전하려던 임성재(24·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대회에 기권했다.

KPGA 코리안투어는 12일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출전 예정이던 임성재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대회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성재는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주 귀국했으며 12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클럽에서 개막하는 대회 1라운드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성재는 19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